

清代 中國 東北部 地域 一字屋에 관한 研究

- 燕行錄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

이 승 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서 론

1.1 연구 목적과 의의

民居¹⁾는 인류역사상 가장 일찍 출현한 건축 유형으로 시대나 지역 또는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형성·전개되어 왔다. 실제로 넓은 영토를 지닌 중국은 지역에 따라 자연 환경이나 민족 구성이 달라 다양한 문화가 계승되고 있거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는 민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중국 동북부 지역 민거의 경우 일본인을 비롯한 타민족 학자들에 의해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대상 범위가 吉林과 長春을 주대상으로 한 길림성이나 內蒙古自治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遼寧省 지역의 민거에

대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다시말해 요녕성을 중심으로 한 민거에 관한 기록·조사·연구가 희박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燕行錄²⁾은 이 지역의 민거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연행록에 나타난 내용중에서 一字屋의 평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2 연구 방법과 내용

조선시대에는 使行만이 바깥 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공인된 창구였기 때문에 조선의 사행인들은 燕中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상세하고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그들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건축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잘못 기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도록 서술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연행록들이 여러 차례 거의 일정한 여정 속에서 각 지방을 돌아보고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어 서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들을 종합함으로써 일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연행

1) 民居란 크게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개개의 人家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인가가 모여 군집을 이루는 전체를 일컬을 때 쓰인다. 이 용어는 李衍(의대수)의 『新增東國輿地勝覽』, 柳馨遠의 『隨溪隨錄』, 『兵制後錄』, 李宜顯의 『庚子燕行雜識』 등의 책에서 16~18세기에 걸쳐 두루 사용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주택과 더불어 민거라는 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때 민거는 대개 일반 평민들의 향촌 주택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清代 중국 동북부 지역의 일자옥은 주로 일반 평민들의 일자옥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거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2) 燕行이란 조선시대에 청나라로 使節을 보내던 제도로, 이때 燕京으로 사행가던 일행들이 燕中에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글을 燕行錄(對淸 使行紀錄)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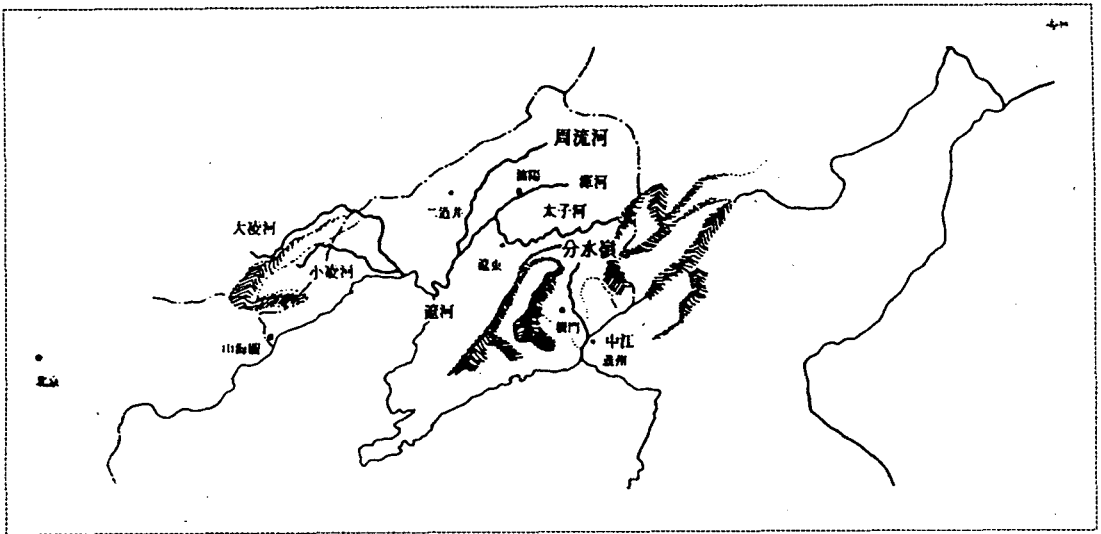


그림 1. 연행록에 나오는 청대 동북부 지역의 山水
(柵門에서 北京까지 산수를 중심으로)

록이 가지고 있는 기행문이라는 성격상 풍물·풍속·습관·생활·민족·사고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단순히 일자옥 자체만을 다룬 물리적 측면의 연구가 아니라 그것을 발생시킨 배경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연행록에 나오는 기후·지리·토양과 산물에 관한 각 지역별 관련 기사들을 수집해 정리한 후 일제 시기에 간행된 만주 관계 사료들을 참고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각 민족의 활동 영역이나 영향력권을 중심으로 당시 민족의 분포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실질적인 일자옥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재료·構法·평면의 구성·건축사고 등을 살펴보았다.

단, 본문에서는 일자형 평면의 출현 배경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특징 가운데 기후·대지 조건·경제적 여건·생활 습관·건축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왜 이 지역에서 일자형 평면이 출현했고 이것이 민족에 관계없이 점차 하나의 형태로 규범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 자연 환경과 민족의 분포

2.1 자연 환경

연행록에 나오는 여정을 따라가보면 각 지역의 자연 환경을 구분해 주는 지형상의 분기점을 몇 곳 찾을 수 있다. 우선 遼河와 中江을 나누는 “分水嶺”, 遼野로 들어서기 위해 넘어야 하는 “石門嶺”, 요야를 遼東과 遼西로 나누는 “周流河”, 요야가 거의 끝나가는 “山海關”을 들 수 있다.

압록강을 넘은 이후로는 마고령·소장령·대장령 등 石山들이 깎아지른 듯 가파르게 있다. 이후 분수령이 있는데, 이는 여러 지류가 모인 두 개의 큰 하천을 나누어주는 경계가 된다. 會寧嶺은 요동의 지세를 잡고 있는 주요한 맥으로 요동의 여러 산이 이를 쫓아 뻗어있다. 회령령 이후부터 요야에 이르기전까지는 靑石嶺·大石嶺·小石嶺·王詳嶺·석문령 등이 연이어져 있는데 험준하기 때문에 산에 의지하여 약간의 인가가 있을 뿐이다.

석문령을 넘어 냉정에 이르면 산세가 점점 낮아지고, 여기서 10여 리 정도 가면 비로소

산이 다하고 넓은 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요동의 넓은 들판, 곧 “요야”가 나타난다. 이 요야에는 주류하가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서, 일자옥의 분포를 지붕 재료에 따라 나누어주는 기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동서가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산해관 이후부터 북경까지는 위가령·대리영·왕가령 등의 재가 있으나 자그마한 산과 들이 있을 뿐이다.

2.2 민족의 분포

역사적으로 볼 때 명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북 지역에는 만주족과 한족이 같은 생활권내에 서로 관련을 맺으며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행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만주족이 중심을 이룬 관외 지역과 한족이 중심을 이룬 관내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여러 연행록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渡江 이후부터 瀋陽까지는 대체로 만주족이 살았고 한족 역시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심양을 지나 山海關에 이르기 전까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심양을 지나면서 소릉하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人家와 市肆가 수리에 걸쳐 즐비한데,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민점·소혹산보·광녕점·여양역·대릉하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 몽고족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이는 주류하를 넘어 요서 지역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금주위 서북쪽에는 몽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으며 십삼산·금주위 이후에는 관내로 들어가는 주요통로가 놓여 있어 몽고족들의 운송 수레 무리를 볼 수 있으므로, 이 지역도 몽고족의 생활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산해관부터 북경까지의 지역 역시 만주족과 한족이 雜居하고 있었으나 민족의 구성이나 문화면에서나 한족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연행록상의 기록은 대부분 단편적이지만 각 지역 거주민의 민족

구성을 밝히고 있어 이를 입증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그 가운데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회령령에 이르러 보니) 滿人과 漢人의 부녀 5, 60명이 짙은 화장에다 머리에 꽃을 꽂고 떡과 과실을 관후의 영전에 올리면서 향불을 피우기도 했다.³⁾

심양에 머물 적에 통역과 조명회 부사가 목던 집의 주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성안의 民家が 1,000여 호이고, 滿軍과 漢軍을 통틀어 계산하면 5, 6000호가 되며, 장사꾼의 집포까지 합하면 10,000여 호가 된다.⁴⁾

통혼을 하지 않는다. 京城에서 남쪽 지방은 서민들도 통혼하지 않지만, 關東 지방에는 혹 통혼하는 이가 아마 있는 것 같다.⁵⁾

이처럼 두 민족간의 관계를 맺어준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빈번한 교역 관계, 정치적 측면에서는 두 민족간의 상호 친이에 따른 융합, 문화적 측면에서는 서로 교류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청대에 들어 만주족이 공동체를 형성하던 시기에는 구성원 모두 八旗制에 따라 편성되어 지연 관계 위주인 鄉 또는 村屯을 거주 단위로 삼게 되자, 하나의 촌락은 대부분 하나의 旗에 귀속되었다. 청조는 한족에게 복장과 만주어는 물론 머리 양식면에서 만주족의 습관을 따르도록 강요했고 두 민족간에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어 거주시키려 했으나, 명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두 민족간의 내왕은 막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관외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간의 통혼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혈연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특히 만주족과 한족의 통혼이 그러했다. 이러한 통혼과 잡거는 민족 융합을 더욱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생산 방식,

3) 李德懋, 『入燕記』, 國譯 靑莊館全書 XI(서울: 서울출판사, 1990), pp. 206~207.

4) 李德懋, 위의 책, p. 209.

5) 洪大容, 『湛軒燕記』, 국역 답헌서(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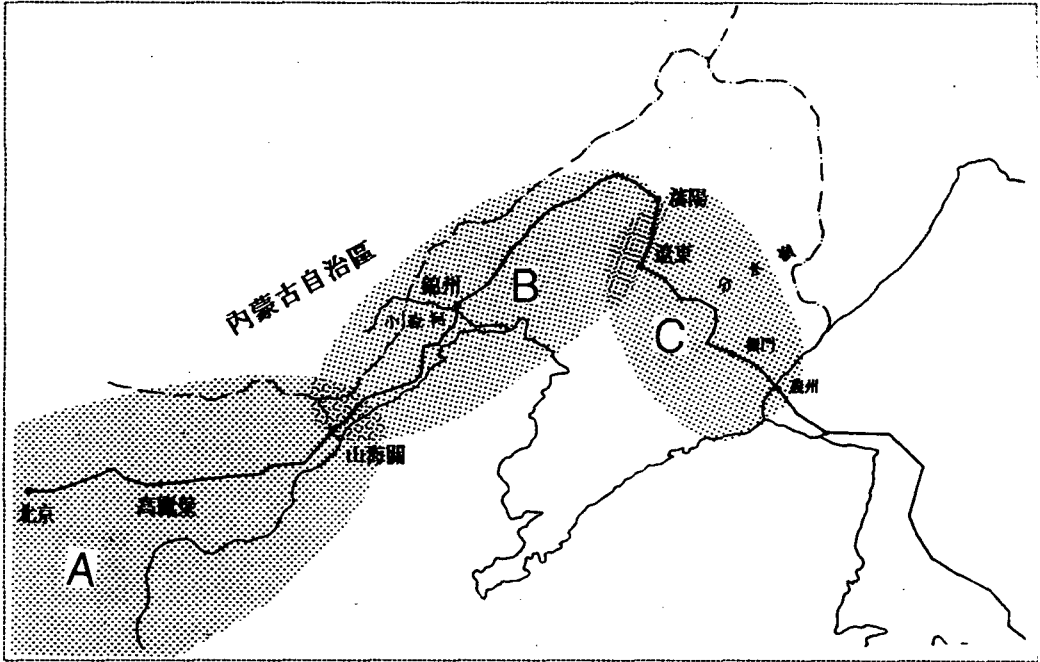


그림 2. 연행록에 나오는 민족의 분포 참고도

(A: 한족>만주족, B:만주족>한족>몽고족, C:만주족>한족; 단, 부호(>)는 상대적인 거주민수 및 그들 문화의 영향력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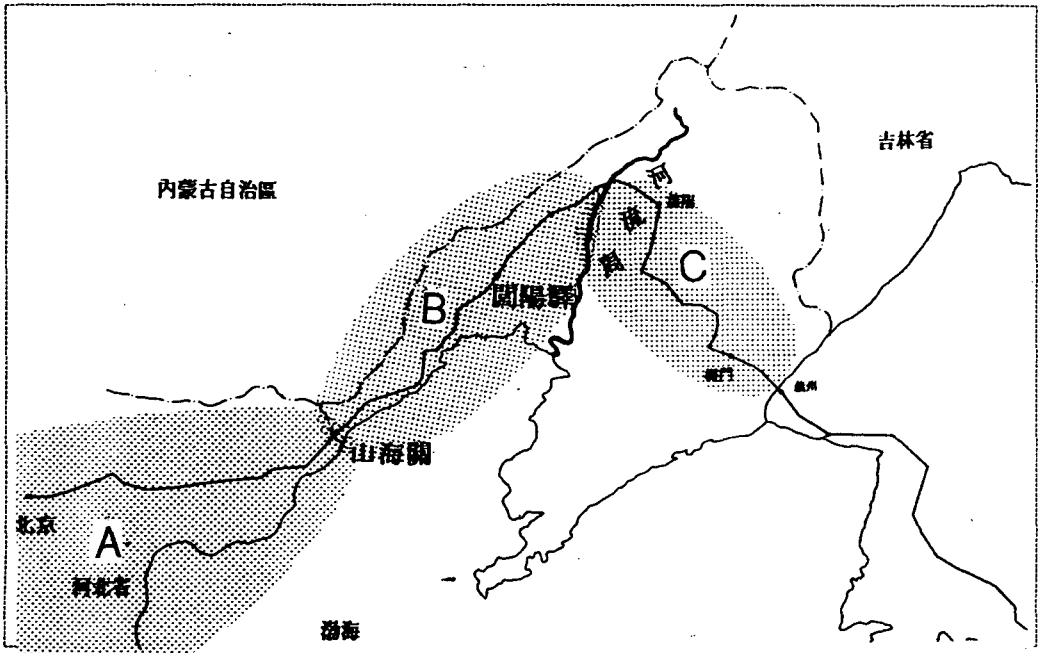


그림 3. 연행록에 나오는 일자옥의 분포 참고도

(A: 瓦屋, B: 土屋, C: 草屋; 단, 이러한 구분은 대개의 경우이며 그 분포가 뚜렷한 경계를 두고 나뉘어지는 것은 아님.)

계급 구성, 언어, 습관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졌다.⁶⁾

곧, 청대 연행로상의 동북 지역은 하나의 민족이 일정한 거주 지역을 점거하고 다른 민족과 경계를 두고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만주족·한족·몽고족이 서로 접촉하거나 잠거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거주했던 민거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문화가 달랐지만 그들이 적응해야 했던 환경이나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민거의 재료 및 구조 뿐만 아니라 평면까지도 한가지 형식으로 규범화 되어갔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일자형 평면이라 서술하였는데, 이는 한가운데의 堂屋을 중심으로 좌우로 실이 덧붙는 홀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행록에 실린 기록을 가지고 이러한 평면이 하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자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민거의 평면이 점차 한 형식으로 규범화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3. 일자옥과 그 분포

3.1 개념

민거를 가리키는 용어는 연행록마다 다르다. 麟坪大君의 『燕道紀行(1656)』에는 ‘家制’, 金昌業의 『老稼齋燕行錄(1712)』에는 ‘屋, 家-屋制’, 李宜顯의 『庚子燕行雜識(1720)』에는 ‘屋, 家’, 金舜協의 『五友堂燕行錄(1729)』에는 ‘家-家制’, 洪大容의 『湛軒燕記(1765-66)』에는 ‘屋, 宅-屋制’, 李押의 『燕行記事(1777-1778)』에는 ‘屋, 家舍-家舍之制’, 朴齊家的 『北學議(1778)』에는 ‘宮室’, 著者 未詳의 『薊山紀程(1803)』에는 ‘宮室-室之制’, 金景善의 『燕轅直指(1832)』에는 ‘屋, 宅-屋宇之制’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사용한 용어는 다르지만 燕中에 분

많은 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창업의 『노가재연행록』,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 이압의 『연행기사』, 박제가의 『북학의』, 徐有聞의 『戊午燕行錄(1798)』, 저자 미상의 『계산기정』에는 “屋은 間架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一字이다(屋勿論間架大小皆一字).”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김순협은 “대체로 胡人들의 집은 모두 一字 모양으로 지어졌으니, 원래 橫閣은 없었다(大抵胡人之家皆一字制樣元無橫閣者矣).”고 하였고, 홍대용은 “屋制는 직방형으로 되어 4면이 집이고 네 모퉁이가 비어 있는데 담으로 연결되어 있다(屋制蓋取方直四面爲屋空其四維牆以承之).”고 하였다.

곧 연행록을 통해 이 지역에 나타나는 민거의 평면 형태를 보면, 규모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두 일자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屋에 특별히 “一字”를 쓴 이유는 글자 그대로 평면이 꺾인 부분 없이 곧바른 것이 사행인들의 눈에 가장 큰 특징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下戶의 민거는 대체로 한 동의 “일자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富戶의 민거는 몇 동의 “일자옥”으로 구성되어 원락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건축군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로써 “일자옥”이다. 또한 연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 특히 關外 지역에서 관찰된 옥들은 대개 하호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일자옥이 곧 전체가 된다.

3.2 분포

사행인들은 일자옥을 크게 草屋·土屋·瓦屋으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는데, 이는 지붕에 이르는 재료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구분이 분명함에도 이들은 하나의 평면 유형, 곧 “일자형 평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어느 한 유형 또는 두 유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다음 세

6) 方學鳳, 『中國東北民族關係史』(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pp. 176-222.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渡江 후 周流河 이전 지역까지, 周流河 이후 山海關 이전 지역까지, 山海關에서 北京까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도강 후부터 주류하 이전 지역”은 초옥의 분포 지역이며, 간간이 와옥도 있었음을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봉성부터 주류하까지는 초가가 많다(自鳳城至周流河多草家).⁷⁾

봉성에서 주류하까지는 초옥이 대부분이다. . . . (귀경길에) 고성자에 이르니 수십 호로 구성된 촌락이 있었다. 모두 초옥으로 옥제는 높고 컸으며 모두 넓게 흙담을 두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8참에 이르기까지 옥제가 대체로 이와 같았다(自鳳城至周流河草家居多. . . . 至古城子有村數十家皆草屋而屋制高大皆廣圍土牆自此以後至八站屋制大低同此也).⁸⁾

이처럼 초옥이 주를 이룬 이유는 嶺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과 요야가 펼쳐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풀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류하부터 산해관 이전 지역”은 주로 토옥의 분포 지역으로 이는 無樑屋⁹⁾이라고도 칭했다. 또한 와옥은 보이지만 초옥은 없다.

여기(여양역)부터 무랑옥이 있고 초가는 아주 없어 초가와 와가가 귀하기가 다른 곳보다 특이하다고 한다(自此有無樑屋而草蓋者絕無凡草瓦之貴異於他處云).¹⁰⁾

이는 주류하 이후부터는 바람이 매우 세고 진흙땅이 대부분이어서 풀이 잘 자라지 않아 지붕에 이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고, 지붕 재료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진흙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산해관에서 북경까지의 지역”은 와옥이 주를 이루고 토옥은 가끔 보이거나 초옥은 없다. 곧 번성한 큰 성시가 많은 관내는 관외와는 여러 정황에서 달라, 제법 큰 동량으로 지은 와옥이 주류를 이룬다.

단, 이상의 분류는 대개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그 경계가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3.3 일자형 평면의 구성

남향을 한 일자형 평면은 堂屋을 중심으로 양측에 실이 덧붙는 형식이다. 그래서 당옥은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쓰였으며, 당옥에는 각 실로 들어가는 문을 내었다. 물론 모든 민거가 당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좌우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식은 개념상 분명 하나의 규범으로 통용됐다.

곧, 칸수를 늘리는 경우라도 양측 중 어느 한 측에만 칸수가 더해지거나 꺾여서 칸이 덧붙는 형식이 아니라 좌우에 동일하게 붙어 확장되는 형식이다.

前後門의 사이가 곧 正堂이요, 堂 좌우에 각각 문이 있는데 그 안이 곧 室이다(前後門之間卽正堂而堂左右各有門其內卽室也).¹¹⁾

한족의 일자옥에서는 당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좌우대칭으로 실을 배치하는 규범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옥이 정가운데에 있는 것은 한족의 습관으로, 그들에게 당옥은 가족 구성원의 지배적인 권위와 지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곳은 조상을 봉양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객당으로 쓰였다.

그러나 만주족은 습관상 “以西爲貴”라 하여

추진회, 1982), p. 392..

11) 金昌業, 앞의 책, p. 30, 李宜顯, 앞의 책, p. 70.

7) 李押, 『燕行記事』, 국역 연행록선집 IV(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p. 217.

8) 金昌業, 『老稼齋燕行錄』, 국역 연행록선집 IV(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p. 31, p. 511.

9) 無樑屋이란 당시 사행인들이 보 상부의 가구 구조를 보고 칭한 용어로, 용마루를 세우지 않은 채 지붕을 평평하게 만든 민거를 일컫는 것으로 연행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글로 著者 未詳인 『薊山紀程』의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주류하부터 산해관까지는 옥 지붕을 흙으로 평평하게 바르기도 하고 혹은 木板으로 덮기도 하고 薄石으로 덮기도 하면서 용마루를 세우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랑옥이다(自周流河至山海關或於屋上平塗以土而或蓋以木板或葺以薄石不起屋脊者有之此謂無樑屋也).”

10) 金正中, 『燕行錄』, 국역 연행록선집 IV(서울: 민족문화

서쪽을 높이 여겨,¹²⁾ 西室을 上屋으로 하여 3면에 炕을 놓았다. 그래서 서실에는 집안의 웃어른이 기거하거나 귀한 손님을 맞는 객당으로도 쓰였으며, 서실 내의 西炕은 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삼아 그 존엄함을 내보였다. 이러한 서실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동실보다 큰데, 이것이 바로 만주족 민가의 일자형 평면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관의 지역에서는 차차 한족과 잡거·통혼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유의 습관이 사라지고 한족과 일체화 되어갔다. 이러한 현상을 서유문은 “집안에 흑한 칸도 놓았으며 두 칸도 놓았으며, 3면으로 칸을 놓은 제도도 있다.”¹³⁾고 기록하고 있다.

몽고족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하며 몽고포에서 생활했는데,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한족이나 만주족과 함께 정주하는 이들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한족의 일자옥을 받아들였다. 곧, 청대에 이르면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고인들은 전통의 몽고포에서 살았으며, 半農半牧地區에서는 土木 구조의 몽고포가 출현하여 원형의 土牆屋을 형성했고, 농업 지구의 몽고인은 이미 오랫동안 정주했기 때문에 점차 한족의 平房을 쫓아가게 되었다.¹⁴⁾ 연행록에 실린 몽고족 관련 기사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민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들 역시 일자옥에서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자옥 실내에는 甃으로 만든 炕을 남쪽 창에 붙여 설치했고, 항 외의 부분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甃을 깔았다. 부뚜막은 屋內에 두었으며, 굴뚝은 屋外에 두어 벽에 붙여 세우거나 벽에서 떨어져서 세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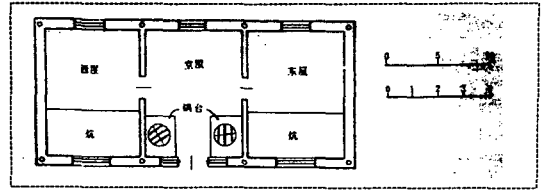


그림 4. 漢族 일자옥의 기본 평면
(자료: 張馥賢, 『吉林民居』, 1985, p.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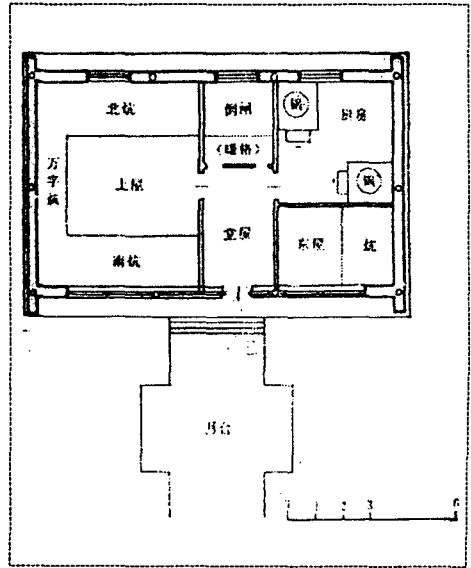


그림 5. 滿洲族 일자옥의 기본 평면
(자료: 그림 4와 동일, p. 45.)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족마다 문화가 달라 그 평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된 환경하에서 잡거하게 되면서 민족에 관계없이 일자형 평면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일자형 평면의 출현 및 규범화

4.1 기후

요녕성 일대는 매우 한랭하고 추운 지역이어서 많은 일조량의 확보가 필요했고, 북방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각 건물 간의 인동 거리나 좌향, 평면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12) 王宏剛·富育光 編著, 『滿族風俗志』(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1), p. 62, 1991.
13) 徐有聞, 『戊午燕行錄』, 국역 연행록선집 VII(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p. 41.
14) 張碧波·董國亮 編著, 『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pp. 720~721. 平房이란 연행록상의 無樑屋과 동일한 개념으로 평평한 지붕을 지닌 민가를 가리킨다.

조정되었다. 그래서 건물의 길이면이 남쪽을 향하도록 했으며, 남쪽면에 커다란 문과 창을 설치했고, 正房 앞에는 대개 大院庭을 두어 많은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글에서도 보인다.

公屋이나 私屋은 대개 남향이 흔하다(公私屋大抵多南向).¹⁵⁾

남쪽벽에는 밝은 창을 만들어 두었는데 겨울에는 곁창으로 만들어 추위를 막고 날이 따뜻하면 항 위로 밀쳐서 달아 놓는다(南壁爲明窓冬則復其窓而備寒一暖則內吊于炕上蓋).¹⁶⁾

이처럼 추운 지역인데도 열 손실이 큰 창을 前面部에 과감하게 설치한 점이나 좌향을 남향으로 삼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일조량의 확보는 민거를 짓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이는 흙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이 정착해 가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4.2 대지 조건

관외 지역에는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다. 이압의 『연행기』에 실린 기록에 따르면 관외는 땅이 모두 광활하기 때문에 家垆가 심히 넓고 크며, 관내와 경성은 동네가 준비하기 때문에 基址가 몹시 좁다고 서술되어 있다. 곧 관외 지역에서는 서로간의 인동 거리를 지키면서 민거를 지을 만한 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면을 굳이 꺾을 필요가 없었다.

4.3 경제적 여건

일자형 평면의 출현 및 규범화 배경으로 이 지역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토양과 산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도강 후 요야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많은 嶺이 있어 대개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

으나, 민거를 짓는데 적당한 재목인 소나무는 몇몇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는 개오동나무·갈참나무·개암나무·무궁화나무·가죽나무 등 잡목 밖에 없었다.

李德懋의 『入燕記』에는 棟樑으로 쓰일 재목을 공급해 주는 渾春이라는 지역을 서술하고 있으나¹⁷⁾ 연행로상에는 건축 자재를 생산·공급해 줄만한 곳이 없었으며, 대개 번성한 큰 성시의 경우에만 이를 다른 지역에서 운반해와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목이 거의 없는 넓은 평원인 요야는 요동과 요서로 나뉘는데, 이 두 지역은 산물이 달라 각기 다른 지붕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연행록을 보면 요동 지역에서는 高粱, 大豆, 粟 등이 산출되며, 초옥의 지붕을 이는 재료로 草·蘆·蘆·粟·蜀·苫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요서 지역에서는 바람이 세서 풀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지붕 재료로 진흙을 채택한 토옥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城土·鹽土를 사용하여 지붕 마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봉성에서 주류하에 이르기까지는 초가가 많고, 주류하부터 산해관까지는 토옥이 많다. 토옥이 나타난 이후로 이따금 와가는 있어도 초가는 전혀 볼 수 없다. 이것은 이을 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自鳳城至周流河草居多自周流河至山海關土屋居多自有土屋以後間有瓦家而絕不見草家).¹⁸⁾

屋制는 평평한 큰 소반 같으며, 해변의 잔 흙이나 백회를 그 위에 바른다. 비록 이영을 덮은 것이 없어도 해가 지나도록 바람·눈을 겪어도 조금도 무너져 새는 곳이 없다(屋制如平大盤以海邊城土以白灰塗之上雖無苔蓋經歲風雪小無壞漏之處).¹⁹⁾

여기서 말하는 해변의 잔 흙이란 감토를 가리키는데, “감토 그 자체 특성상 빗물이 침투하

17) 李德懋, 앞의 책, p. 209.

18) 金昌業, 앞의 책, p.31, 著者 未詳, 『蔚山紀程』, 국역 연행록선집 VIII(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p. 368.

19) 金正中, 앞의 책, p. 545.

15) 金昌業, 앞의 책, p. 30, 李宜顯, 앞의 책, p. 70.

16) 金景善, 앞의 책, p. 151.

면 표면이 한층 더 반들반들해지기 쉽고, 빗물이 침투하고 난 후 빛을 쬐이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²⁰⁾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사행인들은 그들이 방문한 토옥의 지붕이나 벽면에서 빗물이 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劉敦楨은 “감토와 진흙에 鹼水나 鹽水를 섞는 방법의 효력은 결코 크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방법은 특별히 간편하고 농민 스스로가 지을 수 있으므로 광대한 농촌의 경제 상황에 알맞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²¹⁾고 하여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연행로상에 놓여 있던 촌락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사행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발작물을 경작하여 생활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은 실로 미약했으며, 이는 일자옥의 규모·평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4.4 생활 습관

평면형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거주민의 생활 습관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炕과 옥외 창고의 설치이다.

연행록을 보면 항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공간, 잠을 자는 공간, 책을 읽거나 밥을 먹는 공간, 감실을 두어 제사를 지내는 공간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곧 여러 생활들이 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항과 바닥으로 구성된 각 실에는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겹집 형식으로 하여 항을 전면에 깔아 좌식 생활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도모하기보다는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을 겸할 수 있도록 항을 부분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실제로 한랭한 기후를 보이는 함경도 북부 지방이나 길림성에 분포하는 조선족 민거의 경우 전면 온돌과 정지가 나타난다. 특히 이들의 평면은 겹집이 많은데, 이는 일조와 관련되는

기후 요소보다 좌식 생활이라는 실질적인 요소가 평면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곧 생활면에서 볼 때, 만주족이나 한족에게 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민족의 溫突과 달랐기 때문에, 외형상 동일한 일자형 평면이라도 겹집이 아닌 홑집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저장 공간을 민거 내에 두지 않고 밖에 두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

야인들은 반드시 거처하는 집 밖의 공터에 빙 둘러 담장을 치고 그 안에 곡식을 쌓아두니, 이른바 장포였다(在野之人則必於所居外空地周築垣墉積粟於其中所謂場圃也).²²⁾

대개 다른 지역의 오래된 민거에는 지붕 밑이나 각루, 덧붙인 작은 집, 옥내의 공간을 교묘히 이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²³⁾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따로 집 밖에 물건을 두거나 저장고를 만들었으며, 벽감이라고 해봐야 겨우 감실을 두는 정도였다. 곧,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홑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으로 나타났다.

4.5 건축 사고

민거는 거주민의 관념이 건축 사고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만주족이나 한족에게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종법 사회의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민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곧, 전체 건축군에서 각棟의 위계, 각 동내의 각室의 위계, 항 위와 항 아래의 위계가 그것이다. 그래서 3동 또는 4동의 일자옥으로 구성된 건축군에서는 正房이 廂房보다 위계가 높았으며, 당옥을 중심으로 볼 때 좌우 正間이 次間보다 위계가 높았으며, 항 위가 항 아래보다 위계가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압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20) 張馭賢, 『吉林民居』(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 5, 1985.

21) 劉敦楨, 『中國住宅概說』(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 29, 1957.

22) 金舜協, 앞의 책, p. 244.

23) 荊其敏 著, 韓東洙 譯, 『그림으로 보는 중국전통민가』,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4), pp. 184~185 참조.

먼저 外室에 들어가니 주인이 세 사신을 인도하여 항 위에 올려 앉히고 자신은 사양하며 登對하지 않고 交倚에 앉아 筆談을 했다(初入外室主人引三使登坐炕上主人則辭而不登對坐於交倚上與之筆談).²⁴⁾

따라서 각 동에 위계를 부여하여 전체 건축군으로 조합하거나 당옥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실이 놓이도록 평면을 규범화시켰다. 곧, 일자형 평면은 위계를 명확히 구분해 주고 이를 하나의 건축 규범으로 규정짓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5. 결 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대 중국 동북부 지역에 왜 홑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이 출현했고 점차 하나의 형식으로 규범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량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일자형 평면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실을 확장해 나갈 때에도 겹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이 아닌 당옥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실이 덧붙는 홑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을 채택함으로써 일조 면적을 넓혔다.

둘째, 이 지역의 땅은 광활하기 때문에 가다가 넓고 컸다. 따라서 일자옥간의 인동 거리를 지키면서 민거를 지을 만한 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평면을 꺾을 필요가 없었다.

셋째, 거주민의 경제적 여건은 일자옥의 평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미약한 경제적 여건은 일자옥의 재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그 구법 및 규모에도 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와 맞물려 평면상으로는 일자형 평면이 다른 평면 유형에 비해 민거를 짓는데 매우 경제적인 평면이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넷째, 평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활 습관상 실내에서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

을 편하게 결합 수 있는 평면이 요구되었으므로 溫突이 놓인 좌식 생활 중심의 겹집 형식 일자옥보다는 炕과 바닥으로 그 성격이 구분되는 홑집 형식의 일자형 평면이 채택되었다.

다섯째, 일자형 평면은 전체 건축군에서 각棟의 위계, 각 동내의 각室의 위계, 실내의 炕위와 항 아래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해 줌으로써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종법 사회의 위계 질서를 민거에 부여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었고 이는 이 지역의 건축 규범이 되었다.

참고문헌

1. 金景善, 『燕轅直指』, 국역 연행록선집 X,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2. 金舜協, 『五友堂燕行錄』, 서울: 國學資料院, 1993.
3. 金正中, 『燕行錄』, 국역 연행록선집 I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4. 金昌業, 『老稼齋燕行錄』, 국역 연행록선집 I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5. 徐有聞, 『戊午燕行錄』, 국역 연행록선집 V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6. 李押, 『燕行記事』, 국역 연행록선집 I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7. 李德懋, 『入燕記』, 國譯 靑莊館全書 XI, 서울: 솔출판사, 1990.
8.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국역 연행록선집 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9. 著者 未詳, 『蔚山紀程』, 국역 연행록선집 VI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10. 荊其敏, 韓東洙 譯, 『그림으로 보는 중국전통민가』,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4.
11. 洪大容, 『湛軒燕記』, 국역 담헌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4.
12. 方學鳳, 『中國東北民族關係史』,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13. 王宏剛·富育光 編著, 『滿族風俗志』, 北京:

24). 李押, 앞의 책, p. 91.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1.

14. 劉敦楨, 『中國住宅概說』,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57.
15. 張碧波·董國堯 編著, 『中國古代北方民族文化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16. 張馭寰, 『吉林民居』,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5.

A Study on the *Il-ja-ock*
in Northeast Region of China
during the *Qing* Dynasty
- Focused on the Writings in *Yeon-haeng-rok* -

Lee, Seung-Yeon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Lee, Sang-Ha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of the straight-line-shaped plan emerged in northeast region of China during the *Qing* dynasty. This paper is mainly based on the writings in *Yeon-haeng-rok*.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cessity of a lot of sunshine due to the cold climate in that region made the people select the plan that rooms to be added side by side.

Second, it was not necessary to build the house with non-straight-line-shaped plan due to the reason that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s so vast and the size of the house lot was not limited.

Third, the condition of family income somewhat affect the shape of plan to be straight-line-shaped, which is much economical to construct a house than other shape of plan.

Fourth, the way of living of the people in that region during the *Qing* dynasty made the house plan straight-line-shaped which is convenient to sit either on the floor or on the chair within a room.

Fifth, straight-line-shaped plan became an adequate means to represent the hierarchy of the use of inner space of a house and eventually became an architectural norm of this region.